

##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상품·서비스무역 교육콘텐츠 및 방식에 관한 연구\*

김재성\*\* · 박세훈\*\*\* · 임성철\*\*\*\*

- 
- I. 서론
  - II.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인력 양성정책
  - III. 상품 무역교육 콘텐츠 및 방식
  - IV. 서비스 무역교육 콘텐츠 및 방식
  - V. 결론
- 

주제어 : 무역실무교육, 무역인력양성, 무역콘텐츠, 서비스무역, 무역학NCS

### I. 서론

최근의 국제환경변화는 3차 산업시대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의 진보가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전통적 생활패턴을 바꾸고 나아가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른바 제조업과 ICT기술이 결합하는 「Industry 4.0 시대」가 도래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무역환경에서 기존의 상품무역이 서비스무

---

\* 이 논문은 「산학협동재단」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상품·서비스 무역 교육콘텐츠 및 방식에 관한 연구]를 요약·정리하였음.

\*\*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조교수(제1저자), E-Mail : goodwill@daum.net

\*\*\* 상지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 trade@sangji.ac.kr

\*\*\*\* 강남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조교수(교신저자), E-Mail : kangnamtrade@kangnam.ac.kr

역, 복합무역으로 무한하게 확장하고 있다. 복합무역은 상품(Goods)과 서비스(Services)의 결합인 「G+S형」 그리고 서비스와 서비스의 결합인 「S+S형」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콘텐츠 및 시스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된 무역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무역인력 양성 콘텐츠 및 시스템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 복합무역으로 확대됨에 따른 교육콘텐츠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대학교육 중심에서 산학협동 및 평생교육시스템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On-Off라인 교육방식의 활용 및 산업체와 대학의 협조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무역인력 양성 시스템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든 환경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기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기존의 교육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차세대 교육과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진행되어 온 교육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존의 상품 무역실무의 커리큘럼 및 교육방식의 점검을 통한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무역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품무역에 대한 커리큘럼은 무역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과 기업의 무역실무를 강습하는 대표 교육기관인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대학교육은 보편 타당성에 근거한 내용으로 교육과정과정을 설계하고, 기업의 교육과정은 당장 기업실무에 적용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서비스무역에 대한 커리큘럼은 서비스무역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논문을 통하여 발전적인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 및 산업체에서 교육하는 상품무역 무역실무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방식을 점검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그 결과물을 함께 논의하고 산업체 교육기관, 대학 및 NCS 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자 한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 무역실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 및 교재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새롭게 고민하고 토론하여 더 좋은 발전모델을 만들어 내는 첫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1)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에 물리, 생명과학, 인공지능을 융합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산업혁명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의 AMI(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 독일의 Industry 4.0 등도 같은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기술은 ICT와 제조업이 결합되어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생명공학, 나노기술, 무인자동차, 드론, 빅데이터 등이 회자된다.

## II.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무역인력 양성정책

### 1.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

글로벌 경제는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겪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는 특히 국제무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침체현상은 무역의 총규모 감소, 무역주도국의 변화, 보호무역의 움직임 등의 현상의 배경이 되었다.

2008년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고 세계각국에 무역과 금융 심지어 부동산경제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1930년대 대공황과 그 규모를 비교할 정도의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진국들의 재정악화로 자국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sup>2)</sup>

각 국은 침체에 있는 내수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수출 증가에 주력하면서 교역을 둘러싼 갈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환율갈등이나 금융위기 이후 무역 분쟁은 불가피하지만 그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sup>3)</sup>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도 4차 산업시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역 결제 방식도 전자화폐를 뛰어 넘는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양한 사회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트코인(Bitcoin)의 등장은 법정화폐 시대의 새로운 경쟁자로서 가상화폐는 또 다른 변모를 예고하고 있다.<sup>4)</sup>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무역은 주체로서 개인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자결제시스템에 있어서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확산은 정부당국의 규제만으로 제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산업연구원, “2020년 무역발전 비전과 전략”, 2012. 7, p. 83.

3) 상계서, p. 89.

4) 비트코인은 화폐의 세 가지 조건 중 가치저장수단, 결제수단으로서의 요건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는 반면, 가치의 척도로서의 요건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비트코인 온라인 헤킹사건, 돈세탁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높은 가격변동성 등의 여러 가지 결함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최근 기축통화 역할의 의문과 주요국들의 긍정적인 발언 더불어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2. 무역전문인력 양성정책

### 1) 무역인력 양성정책

우리나라의 무역인력 양성은 무역정책의 발전과 함께 추진되어 왔다. 무역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무역인력 양성 또한 국가의 중대한 과제로 추진되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국의 주요 대학에 무역학과의 설치를 유도하였고, 전국 100여 대학에 무역학과가 1990년대 중후에는 본격적인 무역인력의 양성이 가능해졌다.<sup>5)</sup>

그 후 1995년 WTO 출범 이후 통상질서에 큰 영향을 미쳐 무역환경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역인력양성을 위하여 무역환경의 정보화가 급진전되고, 전자무역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중대되어 전자무역의 인력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본격적인 IT 산업의 성장이 시작되면서 산업계와 정부는 IT 분야와 무역분야가 결합된 전자무역의 중요성을 전자무역 또는 사이버무역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은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전자무역론, 글로벌e-비즈니스론, 통상정보론, 인터넷전자상거래론, 무역정보시스템론 등의 교과목으로 운영하였다.

산업체 무역교육의 시작은 1965년 3월 22일 KOTRA의 ‘수출학교’가 출범하여 무역관련 이론 및 실무, 두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시작되어 정규과정으로 총 5,377명의 실무인력을 양성하였다.

산업체 교육의 시작이었던 ‘수출학교’는 무역협회가 1984년 2월 ‘종합무역연수원’으로 이어 받았다.

그 이후에는 1994년 WTO 체제 출범에 따른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국제무역연수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무역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심이 되었다.

### 2) 우리나라 무역인력 양성 현황

먼저 우리나라 무역인력 양성 현황을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무역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4년제 대학 현황은 전체 101개 대학에서 무역관련 학과를 설치되어 있으며, 국공립대 20개, 사립대 77개, 산업 및 원격대 4개가 있다.

5)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714>, 2017년 12월 15일 방문.

무역과 관련된 학과를 개설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은 4년제 대학교를 기준으로 2016년도 86개 대학에서 122개 학과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무역실무 관련 학과의 명칭을 보면 글로벌통상학과, 국제통상학과, e-비즈니스학과, 무역학과, 국제물류학과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무역학과의 명칭에서 벗어나 국제통상학과와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자유무역 기조의 확산으로 FTA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학과명칭으로 개편하여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국제 물류량 증가와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 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명칭으로 국제물류학과의 변경 사례도 있다.<sup>6)</sup>

그리고 산업체의 경우 무역인력양성은 1965년 한국 무역 1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고무된 정부는 더욱 강력한 수출 진흥정책을 추진하고자 무역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무역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학교 설립을 결정하였다.<sup>7)</sup>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1억 달러 수출 달성은 빈곤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진입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무역규모를 더욱 확산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의 기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여 더욱 강력한 수출 진흥정책 추진하게 된 것이다.

비록 수출학교는 정규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당시로서 무역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무역업을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시킬 교육기관이 없던 상황에서 무역업계에서 당장 필요한 현장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실업문제<sup>8)</sup>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편으로 표준화된 무역실무 전문교육 체계를 설정하고 학생은 물론 무역업 취업 희망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NCS 무역체계가 설정되었다.

NCS 무역학과 교과과정은 학교나 교육기관 마다 일정하지 않은 교과과정을 표준화하여 무역업 기업의 업무를 필요한 수준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의 업무 내용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능과 주요업무로 공통과정을 분석하여 단위별 학습내용을 적용 및 응용하여 기업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교과과정을 설정하는 지침이 될 수도 있다.

NCS 무역과과 과정은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특성과 업무 내용의 수준을 고려하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표준화된 교과과정은 기존의 무역학과 교과과정을 가능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 과정을 설계하였다.

6) 임성철,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무역실무 교과과정 개편방향에 관한 소고”, 무역상무연구 제7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8, pp. 282~283.

7)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5099>, 2017년 12월 10일 방문.

8) 2017년 12월 현재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9.2%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무역업으로 취업을 희망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교육과 전체 과정을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그 준비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 III. 상품 무역교육 콘텐츠 및 방식

#### 1. 대학의 무역실무 교육방식

전통적으로 대학의 무역실무 교육방식은 유형재 상품을 대상으로 한 강의식 교육<sup>9)</sup>과 토론식 수업<sup>10)</sup>이 주종을 이루어 왔다. 전통적인 무역실무 교육에 활용되는 교육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로부터 주된 교육방식은 강의식 교수법이거나 토론식 수업이며, 최근 들어 협동학습, 발견학습, 문제기반 학습, 모의실험, 게임학습, 개별화 교수법, 완전학습, 프로그램형 학습법 등 교육공학을 가미한 다양한 학습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의 학습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 9) 강의식 교수법 전통적으로 실시되어온 강의란 교수가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교수 중심적 형태의 교육방법이다. 강의는 교수의 학생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상호작용을 통한 환류가 힘들며, 지속적인 주의집중 어려움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수업 전 계획에 의거, 언어적으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강의법의 요체로써 최근에는 강의식 교수법에서 벗어난 다양한 방식의 교수법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비록 강의를 통해 들은 지식이나 정보의 파지 및 전이율이 저조하지만, 강의식 교수법은 여타의 교수법 못지않게 효과적일 수 있으며, 모든 교수방법은 저마다의 특색이 있으며, 교수, 학습의 과정요소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수방법이 될 수 있다.
- 10) 토론식 수업은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형태의 교수방법이다. 토론은 문제해결의 과정이기 때문에 최선의 결론으로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토론식 수업은 학습의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효과를 올릴 수 있으며, 교수 중심이 아닌 학생중심의 학습으로 강의식 수업에 비하여 덜 권위적이어야 하며, 융통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토론식 수업의 계획과 실시를 위해서는 교육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토론의 주제가 강의목표에 부합되고, 학생들의 능력 수준, 흥미나 관심 등을 고려하여 토론의 주제와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시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토론에 참여하고 싶은 동기를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가 중요하며, 토론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속 강의실 풍경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극적이며 발표자 학생들도 이해가 부실하고 듣는 학생에게 전달이 어려워 주어진 과정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참가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첫째, 협동학습은 작은 집합체의 이질적인 학생들이 공통 학습목표를 달성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목표로 한다. 협동학습은 구성원들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협동적인 사회적 기술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각 학습자들은 각자의 학습 내용을 책임지지만, 개인이 과제를 종료할 수는 없다. 과업의 종료를 위해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 협업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학습자들의 문제해결 방식을 서로 간에 배울 수 있다. 협동은 특정한 주제학습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상호의존성을 키우고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는 목적 등으로 사용되며, 개별 학생은 책임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둘째, 발견학습은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목표를 성취하도록 한다. 발견학습은 일방적 강의나 훈련 없이 시행착오를 통하여 원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진보적 교육을 바탕으로 한다.

시행착오와 귀납적탐구 방식을 통하여 문제의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발견학습 방법을 문제해결이 가능했다면 그를 통하여 얻게 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발견학습은 내용과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례학습은 문제해결학습의 가장 큰 특징이 된다.

셋째, 문제기반학습은 이전의 학습 내용과 기술을 활용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을 유도한다. 문제해결학습의 과정은 문제 및 모든 구성요소를 정의-가설-자료수집/분석-결론 및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다. 문제기반학습의 문제들은 비구조화된 것으로서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복잡성을 띠는 실제문제를 다룬다. 이 과정에서 협동학습이 필요하고 이 과정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하다.

넷째, 모의실험은 비용, 위험 등을 이유로 실제 상황을 경험하기 어려울 때 실제와 유사한 사례를 통하여 학습하는 과정이다. 학습자는 실제와 유사한 조건과 상황에서 직접 참여하고 응용하여 현실적 체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모의실험으로 배운 지식과 기술은 응용이 가능한 산지식이 되며 실제 상황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모의실험에서 학습자들은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하고, 유사한 상황에 대비한 긍정적인 가치나 태도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컴퓨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모의 학습이 실용적이다.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게임학습은 게임을 활용하여 경쟁상대를 상징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

1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2809&cid=51299&categoryId=51302#TABLE\\_OF\\_CONTENT1](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2809&cid=51299&categoryId=51302#TABLE_OF_CONTENT1), 2017년 12월 21일 방문.

행한다.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데 효과적이다. 게임은 학생에게 문제해결을 위하여 특정 기술을 요구하거나 수리능력, 어휘능력 등 특정 능력의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게임학습은 경쟁을 전제로 하고, 경쟁은 학습자들 사이의 관계, 학습자와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의 규칙 또는 정해진 기준 요소를 포함한다.

여섯째, 개별화교수법은 학습자의 특성을 최대한 개별적으로 존중한다. 개별화교수법은 흥미, 경험, 욕구 등을 우선 조건으로 삼고, 그 이후 과정에서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한다. 학습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관련정보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학습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개별화교수법은 개개인의 요구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거나, 학습자가 교재 및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완전학습은 학습자가 과제를 학습하는 전체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학습결과물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성취도(degree of learning)는 학습에 소요된 시간을 학습에 필요한 시간으로 나눈 결과 값이다.

$$* \text{학습 성취도} = f(\text{학습시간} / \text{학습 필요시간})$$

학습 필요시간은 학습자수준, 이해력, 교과과정의 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학습시간은 학습자의 학습기회와 기준으로 결정한다. 불특정다수 학습자들에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학습 기회를 제공하면 학업성취도는 정상분포곡선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완전학습은 학습자의 결점을 찾기 위한 형성평가 도구의 개발과 다양한 학습자료의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여덟 번째, 프로그램 학습은 일정한 경험을 통하여 학습목표를 순차적으로 달성하는 교육방법이다. 학습설계 프로그램에 따라 실행되는 자극-반응-강화의 순환과정은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반복한다. 프로그램 학습의 큰 특징은 즉각적인 지식의 전달과 속도의 조절이 가능한 점이다.

## 2. 산업체(무역아카데미)의 무역실무 교육방식

고등학교 무역실무과정 또는 대학 교육과정에서 무역실무를 학습하지 못하였다면 일반인들이 취업을 위해 또는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접할 수 있는 학습기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무역관련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무역연수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무역실무 강좌를 유치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실시되는 대부분 무역연수과정은 무역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을 참조하였거나 위탁연수과정의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산업체 무역실무 교육방식으로 무역아카데미의 교육방식을 살펴보는 것으로도 우리나라 산업체 교육방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무역아카데미의 무역실무 교육방식도 대학의 무역실무 교육방식과 마찬가지로 강의식 교육이 주종을 이루지만, 다음과 같은 특색을 보인다. 교육방식은 강의실에서 교육하는 오프라인방식과 e러닝으로 서비스하는 온라인 방식이 있다. 무역아카데미의 e러닝 교육은 오프라인방식의 교육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위탁연수에서는 고객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실습식, 문제해결식 등을 협의에 따라 실시하며, 취업연계 프로그램에서는 글로벌 인턴쉽 등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식이 제공되고 있다.

무역아카데미 연수과정은 크게 모집과정, 위탁과정, 마스터과정, e러닝과정 등으로 구분된다. 모집과정은 무역아카데미에서 연간 연수일정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수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모집과정은 무역실무과정, 무역마케팅과정, 자격시험과정, CEO과정 등이 있다. 위탁과정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교육내용과 대상을 설계하고 무역아카데미에서 수강생을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수강생은 무역업체 및 기업의 임직원,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내용, 방식, 장소 및 시간에 구애없이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과정이다.

마스터과정은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들에게 장기간의 교육을 제공하여 산업체에 인력을 제공하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이다. 현재 무역마스터과정, Smart Cloud IT마스터과정, 패션/의류/섬유 무역전문가과정, 자동차부품 수출전문가 과정, 전자무역 물류마스터과정, 글로벌 무역인턴쉽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의 특징은 청년취업을 위하여 수강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자금과 한국무역협회의 자체자금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다.<sup>12)</sup>

### 3.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무역실무 교육방식

NCS 교과과정의 도입은 표준화된 학습 방법과 범위, 직종별 직무능력별 필수 내

12) <http://www.kita.net/academy/academy.jsp>, 2017년 12월 21일 방문.

용을 구분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CS 교과과정의 도입을 통하여 전국 대학에서의 무역학 교과과정을 표준화하고 수준별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무역업에 필요한 명확한 범위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학교마다 무역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무역학과 졸업생도 그 전공지식의 수준이 다양하여 일반적인 무역 업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NCS 무역학 교과과정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무역학 전공학습 교과과정에 관한 표준 교육목표와 가이드라인을 무역학과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정규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해야할 교과목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NCS 무역학 교과과정을 채택한 결과 무역업체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표준화하고 이를 필수 직무능력단위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표준화된 교과과정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NCS 무역학 교과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업무의 단계별 수준별 교과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둘째,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용어, 업무절차, 선적서류 등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표준화하였다.

셋째, 단계별 무역업무에 필요한 선행 및 후행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조직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점이다.

특히 NCS 교과과정의 도입으로 무역학 교육과정을 모듈화 교육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게되면 목표수업에 필요한 경우 타 계열의 학습 능력단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무역업체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배치하여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교과목 명칭에 관계없이 학습자에게 필요한 업무내용을 능력단위를 조합하여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표준화된 학습 범위와 교육방법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NCS 무역학 교과과정에 서의 단점이 표출된다. 모든 내용이 단계별로 연결되는 무역학 교과과정의 특성상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업무 명칭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모듈화 하는 경우 전체 거래를 위협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이 현재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NCS 운영 교과방식은 전공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NCS 무역학 교과과정의 단점으로 작용한다. 무역학 교과과정의 특성상 모듈화 학습단계에서 단순한 서류의 검토 및 작성을 다루는 경우에도 무역학에 관한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특성이 보인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무역실무 교과과정, 또는 2년제 대학의 무역학 교과과정에 서는 학생의 학습량과 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단순 암기방식의 교과방 식으로 전체 교과과정을 학습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자동차 타이어교환’, ‘오일 교환’과 같은 단순업무 수행이 반복하는 이 공계 기술계분야는 교과과정의 내용이 항목단위나 기술단위로 체계화되어 있어서 NCS 수행과정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기술분야의 특성으로 전체적인 개 념의 이해가 필요 없이 항목단위나 기술단위의 명칭에 따라 단순 업무로 그 수행 이 교육과정 전체의 내용과 분리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NCS 교과과정의 적용이 적합하다.

반면에 무역학분야는 항목단위나 기술단위의 명칭에도 전체적인 개념 학습을 전제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NCS의 수행과정으로 무조건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무역업의 수행과정에서 표시되는 용어나 단순한 서류명칭에도 다양한 단계 의 개념을 사전에 학습해야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전체 거래과정을 클레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예컨대, “상업송장 작성”, “선적서류 작성”과 같은 기능적 업무 수행은 교육과정 전체의 내용과 분리하여 학습하고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국제무역거래는 쉬워 보이는 사소한 내용의 착오에도 전체 거래과정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체와 부분을 분리하여 무리하게 NCS 교과과정으 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IV. 서비스 무역교육 콘텐츠 및 방식

### 1. 서비스 무역의 정의

상품무역(trade in goods)은 대외무역법에서 “물품 등의 국가 간 이동”이라고 정 의하여 비교적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만,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일된 정의가 아직 없다.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는 서비스무역의 개념 자체 보다는 서 비스무역의 거래형태를 규정하고 있다.<sup>13)14)</sup> 대외무역법에서도 서비스무역의 개념 적 접근보다는 상품무역을 넘어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 차원으로서의 정책적 측면

의 서비스무역을 다루고 있다. 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거래의 대상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그리고 (상품+서비스), (서비스+서비스), (상품+기술) 등으로 확대되어 복합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 영향으로 무역의 명칭도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 기술무역, 복합무역, 스마트무역, 창조무역, 미래무역 등으로 무한하게 진화하고 있다.

GATS사무국에서 제안하는 서비스로는 사업서비스(Business services), 통신서비스(Communication services), 건설서비스(Construction services), 유통서비스(Distribution services), 교육서비스(Educational services), 환경서비스(Environmental services),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건강 및 사회 서비스(Health-related and social services), 여행 및 관광관련 서비스(Tourism and travel-related services), 여가, 문화, 스포츠 서비스(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s services), 운송서비스(Transport services), 기타서비스(Other services not elsewhere included) 등이 있다.<sup>15)</sup>

상거래의 본질상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든 서비스이든 기술이든 거래의 대가로서 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이 이루어지게 된다. 수출입거래에서 수입의 경우에는 대금이 지급되며, 수출의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한다. 상거래의 본질은 같은 반면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과 다르게 통관 등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금거래가 수반되는 국제간 거래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sup>16)</sup>

이러한 특징을 볼 때 서비스무역은 통일된 개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품무역과 달리 통관 등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금거래가 수반되는 국제간 거래라고 정의될 수 있다.

## 2. 서비스무역 교육의 필요성

세계무역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41.5조 달러이며, 상품무역이 32조달러(77%), 서비스무역이 9.5조 달러(23%)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무역 비중은 2010년 20.5%에서 이후 2015년 23%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sup>17)</sup>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와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서비스경제화가

13) Aaditya Mattoo, Robert M. Stern and Gianni Zanini, *A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49.

14)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WTO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15)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agrm6\\_e.htm](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agrm6_e.htm), 2017년 12월 23일 방문.

16) 박문서, “서비스무역 프로세스 분석과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31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6. 11, pp. 43~45.

17)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진행되고 있으나 서비스무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무역 통계가 모든 서비스 업종 및 서비스 제공유형의 통계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취업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전체 취업자(2,624만명)의 77.9%(2,045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광공업 및 제조업은 17.2%(45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서비스산업은 규모 및 비중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보인다.<sup>18)</sup>

### 3. 서비스무역실무 표준 커리큘럼

#### 1) 서비스무역실무 표준 커리큘럼 개발방향

현재의 상품무역에 대한 무역실무 교육은 절차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계약중심의 접근하는 교육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절차중심의 무역실무 교육방식의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내용의 중복이 발생하고 무역절차가 간소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효과적이 못한 면이 있다. 따라서 제시할 모형인 ‘서비스무역실무’(가칭)는 서비스 수출 또는 수입을 계약중심으로 서비스무역을 접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계약중심의 서비스무역실무는 계약의 성립·이행·종료(불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법리적 기초 위에 서비스무역 업무를 설명하는 것이다.

상품무역과 달리 서비스무역은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므로 서비스무역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가 있다.<sup>19)</sup>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우리나라 대학과 산업체 교육기관<sup>20)</sup>에서 서비스무역을 교육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다.

서비스무역 교육의 목적은 서비스무역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다. 서비스 무역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무역이론 및 무역경영을 바탕으로 상무적

18)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7년 12월 22일 방문.

19) 박문서, “서비스무역 교육 및 연구방향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33권 제3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7. 12, pp. 88~89.

20) 대표적인 무역관련 산업체 교육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 KOTRA 글로벌연수원 등이 있다.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무적 관점에서 서비스무역이란 서비스무역절차, 서비스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및 종료로 구성될 수도 있다.

결국 서비스무역 전문인력 양성이란 서비스무역의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고 분야별 실무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력을 갖춘 전문화된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무역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의 한 방식으로 상품무역의 교육과정과 교재개발 사례를 응용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국제거래를 계약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제서비스계약 개론, 서비스무역계약 성립, 계약 당사자 및 법률관계, 서비스무역계약의 이행, 분야별 서비스무역계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야별 서비스무역 계약에는 서비스공급계약, 판매점·대리점계약, 국제건설·자원개발계약, 의료·관광서비스계약, 국제고용계약, 컨설팅계약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서비스무역의 종료는 서비스무역 클레임의 예방·제기·해결, 서비스무역 사후관리 등을 다룰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분야별 발전방향 및 전략은 미래 한국 무역의 유효한 경쟁력을 확대하고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계, 학계와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학관 협력이 절대적이다.

## 2) 서비스무역실무 표준 커리큘럼

기존의 상품무역 커리큘럼을 응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서비스무역에 대한 무역실무 표준 커리큘럼을 마련할 수 있다. 전통적인 상품무역 교육 과정은 산업계와 대학의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sup>21)</sup>

산업계 교육과정으로서 무역아카데미 정규무역실무과정을 살펴보면, 수출입절차개요 → 해외마케팅 → 무역계약 → 수출입대금결제와 신용장 → 무역운송 및 해상적하보험 →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 FTA원산지실무 → 외환실무 → 무역거래방식별 실무 → 무역절차별 주요 서류의 이해 및 작성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에 A대학 무역학과의 무역실무 커리큘럼은 글로벌통상개론 → 국제상무론 → 관세론 → 글로벌통상영어 → 국제결제와 신용장 → 국제운송론 → 국제거래분쟁론 → 전자무역론 → 국제상무세미나 → 국제물류와 무역 등 10개 과목 30학점으로 구성된다.

21) 박광서, “서비스무역 커리큘럼 개발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2, p. 756.

<표-1> 서비스무역 세부 교과목

구 분		교육내용
① 서비스 무역상무	계약성립	· 국제 서비스계약 개론, 서비스계약 성립 · 서비스무역계약 당사자 및 법률관계
	계약이행	· 매매관련: 국제결제·금융서비스, 국제운송서비스, 국제보험서비스 등 · 유통관련 서비스계약 · 분야별 서비스 계약: 판매점·대리점계약, 국제건설·자원개발계약, 국제고용계약, 용역제공계약, 컨설팅계약 등
	계약종료	· 서비스무역 클레임 예방, 제기, 해결 · 서비스무역 사후관리
② 서비스 무역실습	· 서비스무역 관련 서식 및 Simulation · 서비스무역 사후관리	
③ 서비스 무역 Case	· GATS 서비스분야 및 한국형 서비스분야(신성장동력) · 산업별 무역전략(Case Study) - 헬스케어산업, 프랜차이즈산업, 금융산업, SW 및 콘텐츠산업 교육·e-러닝산업, 관광산업, 운송산업, 영화·한류산업, 게임 산업 등	

\* 자료 : 박광서, “서비스무역 커리큘럼 개발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2, p. 757.

선행연구에서는 <표-1>과 같이 서비스무역 커리큘럼 제시에서 서비스무역실무와 관련하여 서비스무역상무, 서비스 무역실습, 서비스 무역 Case로 구분하여 서비스무역절차, 서비스무역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종료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참조하여 서비스무역실무 세부 교과목을 제안해 보면 서비스무역실무개론, 서비스무역상무론, 서비스무역영어, 서비스무역법규, 서비스무역계약론, 서비스무역결제론, 서비스무역위험론, 서비스무역시물레이션, 서비스무역분쟁론 등을 제안해볼 수 있다.

각 과목별로 학습내용을 제안해 보면 우선 서비스무역실무개론은 서비스무역의 유형분류, 거시적 환경, 서비스무역경영, 서비스무역실무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서비스무역상무론은 서비스무역실무개론에서 서비스무역실무 내용을 심화시켜 서비스무역계약, 결제, 보험, 분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서비스무역영어는 서비스무역실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영어용어와 영어서식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서비스무역법규는 서비스무역과 관련한 국제규칙, 각국

의 법규에 대해 학습한다. 서비스무역계약론은 계약 작성 시 상품무역과 다른 특징을 파악하여 계약조항들에 대해 학습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한다.

서비스무역결제론은 기존의 상품무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결제방법들과 최근 들어 발전하고 있는 전자화폐를 이용한 결제방법들에 대해 학습한다.

서비스무역위험론은 서비스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학습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학습한다. 서비스무역시물레이션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서비스무역시장을 조사하고 서비스무역 유형별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서비스무역분쟁론은 서비스무역분쟁발생사례와 분쟁해결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무역실무교육이 계약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무역전문 인력양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서비스무역실무 교육도 제안한 교과목들과 같은 계약중심의 교과목 개발로 방향성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V. 결 론

기존의 무역은 수출상과 수입상이 상품매매계약을 하고, 그 조건에 따라 운송과 보험을 가입하여 통관절차를 거쳐 인도하고 결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종료된다. 기존의 무역인력 양성도 이러한 계약과 절차에 초점을 맞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은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가오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시작된 신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단순한 상품무역은 성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된 무역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무역인력의 양성과 전세계 무역에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서비스무역에 적응할 수 있는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하여 기존의 상품 무역실무 커리큘럼 및 교육방식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고 서비스무역 실무교육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제안하였다.

1960년대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에 무역학과를 설치하였고, 한국무역협회에서는 국제무역연수원을 중심으로 무역인력을 양성해 왔다.

대학과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실무 교육방식은 강의식과 토론식 강의를 주를 이루어 왔는데 이는 기존 무역실무가 정해진 절차 속에서 이루어진 시대에는 적합한



맞는 교육방식이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융복합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나오는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무역이나 서비스 단독의 무역거래에서는 새로운 교육방식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무역교육에 있어서도 발견 학습, 문제기반학습, 모의실험, 게임형 학습 등의 교육방식을 접목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인 NCS 무역실무 교육방식은 기존 무역업무를 항목단위로 해체하고 모듈화한 것으로, 무역학의 고유한 특성상 전체 과정을 모르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교육방식들을 접목한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시대에 맞는 무역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무역외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서비스무역의 경우에는 대학이나 산업계에서 체계화된 교육콘텐츠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서비스의 개념이 무엇인지 부티가 명확하지 않고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 대한 산발적인 연구는 있어 왔으나 이를 체계화 하여 실무교육은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무역실무 교육도 기존의 상품무역실무 교육과 마찬가지로 절차 중심이 아닌 계약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산업체 교육과 대학의 무역학과 무역실무교육을 참고하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서비스무역실무 세부 교과목들을 제안하였다.

서비스무역 교육도 상품무역실무 교육과 마찬가지로 거래들의 공통분모를 찾아 이를 체계화하여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야 교육을 받는 인력들이 서비스무역거래에 대해 기초를 확고히 할 수 있다. 기초가 확고히 되어야 실무에서도 응용력이 증대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상품무역교육과 서비스무역교육을 위하여 정책당국, 산업계, 학계 등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여 약간의 새로운 방향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다든지 산업계 및 학계에 설문을 통한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재성 · 박세훈, “무역학전공관련 NCS의 이해와 활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2.
- 박광서, “서비스무역 커리큘럼 개발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2.
- \_\_\_\_\_, 서비스무역, 삼영사, 2018. 2.
- 박광서 · 박연우, “무역통계와 실적에 관한 諸문제”, 무역상무연구 제6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8.
- 박광서 · 유광현, “글로벌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합리적인 무역학 교과과정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2.
- 박명섭 역(사자나미 요오코 · 우라다 슈지로 저), 서비스무역 -이론 · 현상 · 과제-, 비봉출판사, 1993.
- 박문서, “서비스무역 프로세스 분석과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31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6. 11.
- \_\_\_\_\_, “서비스무역 교육 및 연구방향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33권 제3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7. 12.
- 임성철,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무역실무 교과과정 개편방향에 관한 소고 - 수출입관리 직무를 중심으로 -”, 무역상무연구 제7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8.
- Aaditya Mattoo, Robert M. Stern and Gianni Zanini, *A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714>
-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5099>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2809&cid=51299&categoryId=51302#TABLE\\_OF\\_CONTENT1](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2809&cid=51299&categoryId=51302#TABLE_OF_CONTENT1)
- <http://www.kita.net/academy/academy.jsp>
-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agrm6\\_e.htm](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agrm6_e.htm)
-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 ABSTRACT

### **A Study on Educational Contents and Teaching Method of Merchandising and Service Trade in Changing Trade Era**

**Jae-Seong KIM · Se-Hun PARK · Sung-Chul LIM**

When existing trade creates a product, a series of processes is terminated when a seller or a buyer subscribes for transportation insurance and is guided through customs procedures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sales contract and then receives payment for it. Training practical Trade knowhow is also educated focusing on the procedures of these contracts.

A new paradigm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launched i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omputer technology. Also, due to the Xinhua tradeism triggered by the United States, the risk of commodity trading is further increasing.

Currently, trade practical education of university and industry is carried out for most lecture and discussion. Since 2014, the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trade has been increasingly managed by the NCS process.

The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trade department has the advantage of being manag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that wishes to find employment and the level of work content. Standardized, the curriculum can faith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and the level of the work content.

In the new era, a new educational method that reflects the tren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s necessary. In this research, we propose that service trade practical education should be educated mainly on contracts, not on procedural basis as with traditional commodity trade education.

Keywords : Trade Education, Trade OJT Training, Trading Contents, Service Trade, International Trade NCS